

“동전 떨어진 줄 알고 돌아봤다”… LG 홈오디오의 ‘공간감’

체험기

LG 프리미어 스위트7

6개 스피커로 방향·거리감 또렷 우주영화 적막·묵직한 저음 구현 배치 바뀌도 앱으로 음향 재조정 필요한 스피커만 골라 사용 가능 전원선 6개 연결은 설치 때 부담

넷플릭스시리즈 ‘동궁’을 보던 중구천(남주혁)이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무심코 옆을 돌아봤다. 화면 속 효과음이 아니라 집 안에서 동전이 떨어진 줄 알았기 때문이다. LG전자의 홈오디오시스템 ‘LG 프리미어 스위트7’을 체험하면서 입체 음향을 가장 실감한 순간이었다.

프리미어 스위트7은 TV 앞에 놓는 사운드바(H7)와 저음을 담당하는 서브우퍼(W7), 거실 곳곳에 배치하는 무선 스피커(M7) 4대로 구성된다. 모두 6개 기기를 설치한 뒤 영화와 드라마 등을 재생해봤다. 여러 대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만큼 웅장



거실에 설치한 LG 프리미어 스위트7으로 우주 영상을 재생하는 모습. 사운드바와 서브우퍼, 무선 스피커 4대를 곳곳에 배치해 소리의 방향과 공간감을 체험했다. /구남영 기자

한 소리를 예상했지만 차이는 음량보다 공간감과 방향에서 더 크게 느껴졌다.

◆우주의 적막감까지 살렸다… 소리 방향·거리감 ‘뚜렷’

특히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는 공간감이 두드러졌다. 우주선이 움직이면 소리도 화면을 따라 앞뒤와 좌우로 이동했고, 진공 상태의 우주를 표현한 장

면에서는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며 특유의 적막감이 느껴졌다. 다시 엔진이 가동되자 묵직한 저음이 바닥과 주변을 채웠다.

영화처럼 효과음이 많은 콘텐츠뿐 아니라 비교적 조용한 드라마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작은 효과음까지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 구분됐고, ‘동궁’의 동전소리를 집 안에서 난 소리로 착각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같은 입체 음향에는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캐넥트’가 활용된다. 여러 개의 스피커를 정해진 자리에 맞춰 놓지 않아도 각각의 위치를 파악해 배치에 맞는 소리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스피커 옮겨도 다시 맞춘다… 앱 클릭 한번에 조정

스피커 배치도 바뀌었다. 무선 스피커의 위치를 옮겨자 같은 영상을 틀어도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과 균형이 달라졌다. 이후 LG 씽큐(ThinQ) 앱에서 다시 설정하자 바뀐 공간에 맞춰 음향도 조정됐다.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스피커를 옮겨도 음향을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었다.

필요한 스피커만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편리했다. 씽큐 앱에서 연결된 스피커 가운데 일부만 켜거나 끌 수 있어 항상 6개 기기를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콘텐츠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스피커만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청취 위치에 맞춰 소리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사운드 팔로우’는 스마트폰 위치를 파악해 사용자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각 스피커의 음량과 균형을 조절한

다. 무선 스피커는 각각 별도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선’이라고 해서 전원선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운드바와 서브우퍼, 무선 스피커 4대 등 6개 기기를 각각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 스피커끼리 음향 신호를 연결하는 선은 필요하지 않지만 소파 뒤나 거실 양쪽에 배치하려면 주변 콘센트 위치까지 고려해야 했다. 스탠드 내부로 전원선을 정리할 수 있어 노출되는 선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콘센트가 없다면 멀티탭이나 연장선이 필요해 배치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프리미어 스위트7을 체험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큰 소리보다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우주영화에서는 적막감이 살아났고 드라마에서는 작은 효과음의 위치까지 느껴졌다. 6개 기기의 전원 연결은 번거롭지만 필요한 스피커를 골라 쓰고 배치를 바꾼 뒤 앱에서 다시 음향을 맞출 수 있어 거실 구조에 맞춰 흡사터터를 구성하기에는 편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장인화 “핵심광물, 한·호주 협력 새 성장축”

〈포스코그룹 회장〉

호주 자원·韓 제련기술 결합 제안
철강·리튬·에너지 협력 확대 추진
방산·우주·R&D 파트너십 확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호주와의 자원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미래산업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이 2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 합동회의에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핵심 광물은 양국 산업 협력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며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 제련·가공 기술을 결합한 공급망 강화를 제안했다. 천연가스 공급망 안정과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산·우주·R&D



2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장인화 한·호 경제협력위(KABC) 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왼쪽)과 마틴 퍼거슨(Martin Ferguson) 호·한 경제협력위(AKBC)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분야로의 파트너십 확대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이차전지소재-핵심광물 협력 ▲혁신·연구개발(R&D) ▲에너지 전환·탈탄소화 등 3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포스코그룹은 그룹 첫 해외자원 전문 연구소인 호주핵심자원연구소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며 양국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인더내셔널은 에너지 협력 역시 전통 자원 확보를 넘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회의 전날인 1일 팀 에어즈 호주 산업혁신장관과 돈 패럴 통상관장장관을 잇달아 만나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철강·리튬·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력도 요청했다. 필리파미네랄즈의 캐슬린 콘론 의장 일행과도 만나 리튬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보는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트리플 코어’ 전략과 맞닿아 있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자원인 철강과 전력자원인 리튬, 에너지자원을 3대 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호주는 포스코그룹 원료 조달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다.

포스코그룹은 1971년 철광석 장기 구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억t 이상의 호주 산 원료를 도입했다. /유혜은 기자 chae@

삼성전자, ‘AI 리빙’으로 유럽 공략

IFA 2026서 ‘AI 일상 동반자’ 구현
냉장고·TV·가전 맞춤형 AI 경험 확대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인공지능(AI)을 여가와 집안 일, 건강관리 등 일상 전반에 접목한 ‘AI 리빙’을 선보인다. 냉장고가 식재료에 맞춰 요리를 제안하고 TV가 시청자의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춰 AI가 작동하는 일상을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2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 훔볼트 카레에서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를 주제로 단독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엔터테인먼트와 홈, 케어 등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삼성전자가 지난 1월 CES 2026에서 제시한 ‘AI 일상 동반자’ 전략을 유럽 시장에서 구체화한 자리다. TV와 가전, 모바일 등 개별 제품의 AI 기능을

넘어 이용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강조했다.

특히 홈 공간에서는 유럽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에너지 절감과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 요리를 제안하며 화면을 통해 연결된 가전의 전력 사용량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사용 환경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한다. 비스포크 AI 세탁기는 세탁물에 맞춰 모터 작동을 조절해 유럽 에너지 효율 A등급 기준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70% 줄였다. 빌트인 식기세척기도 식기의 오염도를 감지해 물과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며 A등급보다 에너지를 20% 절감한다. 별도 후드 없이 냄새와 연기를 흡입하는 후드일체형 인덕션도 함께 전시한다.

/구남영 기자

HS효성첨단소재, ‘탄섬’ 앞세워 글로벌 공략

中 복합재료 전시회서 탄소섬유 공개
모빌리티·스포츠 적용 제품 선보

HS효성첨단소재가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 ‘탄섬(TANSOME)’과 산업별 적용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사 확대에 나선다.

HS효성첨단소재는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장(NECC)에서 열리는 ‘2026 중국 국제복합재료공업기술 전시회(China Composite Expo 2026)’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CCE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등 고성능 강화섬유를 비롯해 수지와 복합재료,

관련 장비를 선보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재료 전시회다. 지난해에는 세계 17개국에서 85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2만7000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13년부터 매년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의 실물 샘플과 산업별 적용 제품을 선보인다. 자동차 휠과 보닛, 브레이크 디스크 등 모빌리티 부품을 비롯해 하키스틱과 피클볼 라켓, 서핑보드, 헬멧 등 스포츠용품도 전시한다. 수소·산소·고압용기와 드론, 전선심재에 적용된 제품도 공개한다. /원관희 기자 wkh@

국회수소경제포럼

현대차·기아 수소기술 점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수소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2일 남양연구소에서 수소 산업의 첨단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종배 공동대표위원을 비롯해 조배숙·안호영·김주영·박형수·김소희 의원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서흥원 한국수소연료전지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호텔TV 넘어 객실 인프라 사업 확대

LG전자가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객실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호텔TV 공급을 넘어 객실 내 기기와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메리어트 본사에서 객실 엔터테인먼트 및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과도영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부사장과 드류 핀토 메리어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매출책임자(CRO)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호텔TV를 객실 내 콘텐츠와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메

리어트가 고객 경험과 호텔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 방향을 설계하면 LG전자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과 객실 기기 통합 관리, 운영 기술 지원 등을 맡는다.

신규 플랫폼은 미국과 캐나다의 메리어트 계열 호텔 40곳에 우선 적용한 뒤 메리어트가 보유한 글로벌 호텔 브랜드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호텔마다 별도로 운영하던 객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호텔별로 서버와 셋톱박스 등을 구축해야 했지만 새 플랫폼을 활용하면 객실에 설치된 기기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도 한꺼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텔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남영 기자